

연세스타병원 권오룡 정형외과 전문 병원장

연세스타병원 정형외과 전문병원 권오룡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 15년 이상 근무하였다. 수술 경험은 10,000회 이상이고 치료 건수는 5000건 이상에 이른다. 그동안 가장 명성을 얻은 분야는 허리, 무릎, 어깨, 고관절, 목 등 관절에 대한 치료 경력으로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TV 등 매스컴에서 건강강좌도 10여년 이상 지속한 정형외과 관절 분야의 명의로 소문난 전문의이다.

연세스타병원은 권오룡 원장 이하 의사와 간호사 등 스텝이 50여명이나 되는 중대형 정형외과 전문병원이다.

800평 규모의 각종 검사실부터 입원실, 재활센터시스템을 갖춘 연세스타병원은 독일 지멘스사의 최신형 MRI 검사 장비와 재활을 위한 도수치료 장비 리엔터테이블 등을 구비, 환자별 맞춤 진료가 가능하다. 또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 3개를 보유하고, 주사 및 도수치료와 재활센터 등을 통한 비수술적 치료도 병행할 수 있다.

권오룡 원장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초기에 발견하면 환자 증상에 맞춘 주사나 도수치료 등 비수술적 요법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해 무릎관절을 보존하면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초기 진단이 늦어져 이미 연골이 심하게 마모돼 보존



권오룡 원장

치료를 비수술적 치료만으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도 가능하다.

권오룡 원장은 “수술뿐 아니라 주사치료, 도수치료, 재활치료 등을 통해 환자가 느끼는 근본적인 통증을 찾아내 치료해야 한다”며 “모든 의료진이 친절하게 환자 중심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학술회에서는 동업계 해외세미나에 다년간 참가하여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 줄기세포 치료 등 신기술을 발표하여 학계의 명성도 자자하다. 게다가 한방의료계의 원로로 잡질의 한방명의 ‘권영훈 한의원’의 장남이기도 하다.

연세스타정형외과병원 TEL 1670-708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7(신흥동 4124) 신흥역 3번 출구



연세스타병원은 개원과 함께 전문, 체계적인 진료를 위한 병원이다.

부고



권종갑 의료법인 황산요양병원 이사장이 지난 9월 30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권태망 대종회 상임위원(전 국회의원)의 부친이다. 권종갑 이사장은 경상북도 영주에서 출생(1924년 12월 12일생)하여 동국대학교 법政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육군대위로 전역했다. 주식회사 동래상사 대표이사, 주류도매협회 회장(부산, 경남, 제주도), 황전토건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한때는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을 역임하며 정치계에 잠시 몸을 담기도 했다. 이후 사회복지법인 황전 이사장과 의료법인 황산요양병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2019년 4월 14일 부산에서 제31회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을 당시 휠체어를 타고 경기장에 나와서 족친들을 격려하며 반갑게 맞이해주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권오상씨 판사 임용(判事任用)

전 수원종친회장 권영갑 회장 차남



권오상(權吾相, 41세)씨가 10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거행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판사(判事)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 권 판사는 추밀공과 양촌공계 안양공 정익공 후손으로 경기 수원 장안에서 부친 권영갑(權寧甲, 77)씨와 모친 한정자(韓貞子, 72세)씨의 차남으로 출생하여 수원 수성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경찰관 경감(警監)으로 근무하던 중 제54회(2012)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판사 임용절차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순으로 판사를 뽑는 법관임용제도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검사 등에 대해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등을 겸정한 후 임용하는 제도로 변경되어 권 판사는 서울 법무법인 광장에서 5년간



송무변호사로 경력을 쌓은 바 있다. 권 판사 형 오근(吾根, 45세)씨는 경찰대와 서울 시립대학원을 졸업하고 경기 남부청 경감(警監)으로 근무 중이고, 누나 오신(吾信, 44세)씨는 연세대 경영학과와 미국 조지타운대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로 미국 워싱턴 DC에 거주하고 있다. 부친은 베트남 참전용사이자 철도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였으며 정부근정표장을 수상했다. 전국 지역종친협의회회장단 초대 간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안동권씨 대종회 이사이다.

수원종친회장 권병후

권태화 감곡농협조합장, 대통령 표창 수상

권태화 음성 감곡농협조합장이 농협 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지난 7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농협 창립 59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4선인 권 조합장은 감곡지역 특산물인 복숭아를 ‘햇사레’란 이름으로 브랜드화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농산물로 자리매김하는데 헌신했다. ‘햇사레복숭아’는 2012년 농식품부 주관 농식품과 워브랜드 대통령상, 2015 농산물 브랜드대전 최우수상, 2016년 농산물마케팅 대상 등을 받았다.



권태화 감곡농협조합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권동환 한미애국총연합회 총재의 훈훈한 미담

권동환(북아공과, 36세) 재미한국학교 위싱턴지역협의회 5대 이사장이자 한미애국총연합회 총재는 미국에 정착한 지 60여년이 흘렀지만 족친에 대한 사랑과 숭조정신만은 변함없이 남다르다. 특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찬조금(\$100)과 종보대금(\$100)을 대종회에 보내준 훈훈한 미담이 족친들에게 대평양을 건너 전해지고 있다. 전 위싱턴 안동권씨 종친회장을 역임한 권 총재는 2017년 10월 25일 황인의 여사와 함께 대종회를 방문(본보 2017년 11월 보도)하여 안동권문의 자긍심과 종보를 통한 소통의 힘 그리고 안동권문의 정신문화의 맥이 면면히 흐



르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어른이시다. 현재도 미국에서 매달 안동권씨종보를 구독하고 있다.

동정



▲한 국 성씨총연합(총재 김호일, 신임 제18대 대한노인회장)과 (사)한국 뿌리문화보존회(이사장 석민영) 지난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충북 단양군 단양읍 양방산길 69 소재, 양백산(兩白山) 국성전(國聖殿)에서 제3회 씨알의 날을 개최하였다. 이날 안동권문의 대표로는 권건중(權建重, 시중공파, 38세) 사무총장이 아현관으로 참례하였다.

논산의 대표적 등단 시인이자 충남문인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일찍이 교육계에 투신 연무고교 교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권선옥 회장은 몇 년 전 정년퇴임 한 이후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논산시지회장으로 선임돼 다양한 지역 환경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권 갑 현 편집위원장(전 동양대 교수)은 10월 13일(화)에서 14일(수)까지 서울 역삼동 한국발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사)퇴계학진흥회와 (사)퇴계학연구원 이 주관하는 퇴계 서세(逝世) 450주년 기념 “퇴계, 서원을 이야기하다”라는 퇴계아카데미 가을강연회에서 “도산서당 창건과 도산잡영 7년 절구 18수”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권갑현 편집위원장은 도산서원 강독유사로 활동 중이다.

▲아이코리아 영양군지회 권낙향씨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영양군은 2020년 양성평등주간(9.1.~9.7.)을 맞아 16일 군수집무실에서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및 표창대상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권의 신장과 양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권영신팀장이 충남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선정한 모범



▲(사)한국가스기술인협회 권오수 회장이 지난 9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권오수 회장은 성실한 직무수행과 직업능력개발을 통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직업능력의 달 기념으로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권오수 회장은 1974년 자신이 저술한 가스산업기사 등 130여권에 이르는 기술서적으로 기술학원이나 법인체 등 지정 교육기관에서 45년간 가스기술인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권 기 식 한중도시우호협회회장이 최근 중국《흑룡강신문》과《길림신문》의 신문



▲권선옥 시인이 지난 3월 한국문인협회 논산시지회장에 취임했다. 권선옥 시인은

과 인터넷망의 기명칼럼 필진으로 초대받았다. 이에 따라 권 회장은 지난달부터 흑룡강신문에 ‘권기식의 시평’, 길림신문에는 ‘권기식의 일가견’이라는 기명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흑룡강신문》과《길림신문》은 흑룡강성(黑龍江)성과 길림(吉林)성 정부가 각각 발행하는 한글신문으로 동북3성의 조선족을 비롯해 한국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과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보유한 매체로 유명하다. 한국에도 지사를 두고 현지 발행을 하고 있다.

2020년 始祖 太師公 秋享祭 案内

2020년도(權紀1091년)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추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 일원
○ 연락처 : 서울 02-2695-2483~4 / 안동 054-854-2256

※ 이번 추향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하게 봉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례위원과 헌관은 반드시 참제하여 주시고, 족친 여러분께서는 상황을 고려하여 참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파종회장은 가급적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전원 당일 참석(대당회 생략) ○ 중식 제공 : 도시락

※ 추향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종중이나 단체의 제수성금은 향사 전용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 301-0268-6817-11, 예금주: 안동권씨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